

# 특하면 자연·결항... 서비스 품질 최하위권 광주공항 불만 목소리 하늘 찌른다

## 한국공항공사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광주 공항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광주공항은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거쳐야 하는 주요 관문임에도, 높은 자연·결항률에 이용자들이 대한 서비스 품질도 해마다 낮아지면서 지역 이미지 훼손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항의 '부실'한 서비스가 KTX 개통과 맞물리면서 이용객 감소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한국공항공사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서비스 품질 점수는 82.1점으로 인천 공

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78.2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점수(90.2점)에 못 미치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서비스 품질 평가 때 점수(96.1점)보다 14.0점이 낮은 수치다.

공항공사는 매년 두 차례 공항별 주차장 서비스·보안 검색·환경 미화·주차대행·순환버스·ID체크 서비스 등 인적·시설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공항의 경우 올 해 조사 항목 중 보안 검색 서비스 분야가 7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공항 평균 88.8점보다 14.3점이 낮았고 지난해 하반기 평가(99.1점) 때보다는 무려 24.

6점이거나 하락했다.

평가 보고서는 '광주 공항 검색 직원은 인사 없이 검색봉으로 나오라고 하는가 하면, 정중한 안내도 없었고 휴대형 검색기로 검색할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적었다. 주차장 서비스 분야도 전국 공항별 주차장 서비스 평균 점수(88.3점)에 훨씬 못 미치는 70.9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친절하지 않고 사무적인 태도, 인사를 하지 않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적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때 100점을 받았던 ID 체크 서비스도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고객을 맞거나 배웅인사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지적되면서 86.7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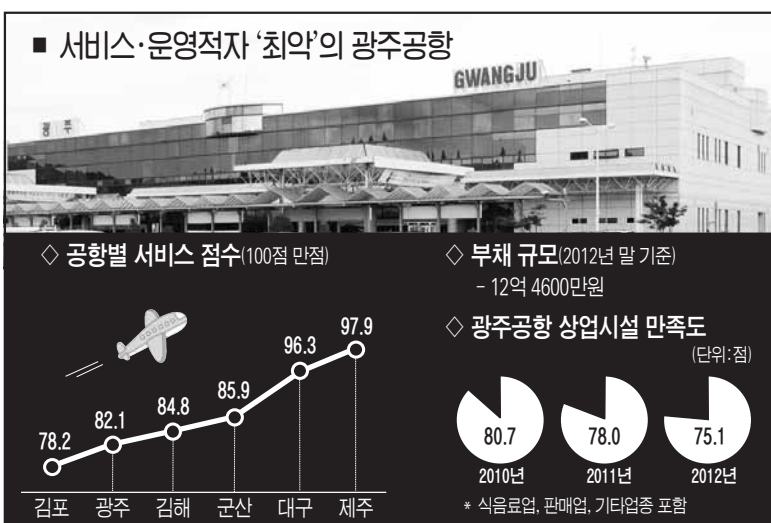
공항 내 상업 시설 서비스 수준도

불만족스러웠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공항별 상업시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공항 상업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공항 내 식음료업,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상업 시설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2010년 80.7점에서 2011년 78점, 지난해 75.1점으로 하락했다.

서비스 뿐 아니라, 결항·지연도 적지 않았다. 결항, 지연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년9개월간 3만 9808대 중 780대(1.85%)가 결항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결항률이 1.58%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



준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1대(운항편 1만238대) ▲2011년 222대(운 1만691대) ▲2012년 202대(운 1만800대) ▲올해 55대(운 8079대) 등이다. 2010년부터 올 9월 말까지 평균 지연율은 4.82%로 전국 평균(4.80%)보다 높았다.

광주공항을 통해 수도권을 오가는 한 지역 기업인은 "공항의 잦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늦게 도착하는 등 사업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공항의 수준 낮은 서비스가 KTX 개통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지역 유일한 공항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1인칭 (9001) 김장두



## 주차 중 다툼에 앙심 흥기 찌른 50대 영장

담양경찰은 22일 자동차 주차 중 다툼 후 합의했으나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흥기로 찌른 운모(51)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씨는 지난 21일 밤 9시50분께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이모(61)씨의 목과 배 부위를 흥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죽석복권 230장 훔친 뒤 "기억 안나"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복권 수백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조모(33)씨는 지난 17일 새벽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박모(여·51)씨의 편의점에서 박씨가 청소도구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간 사이 카운터 앞에 진월면 죽석복권 230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 잡힌 박씨는 복권을 한 장도 안 끊고 그대로 돌려주며 "술에 취해 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17억 금융사기범 잡고보니 '현금인출액' 피의자는 중국에... 범정부적 대책 시급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금융 사기가 진화하고 있지만 공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에 있는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파밍 등 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을 찾아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전 지역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파밍, 대출사기, 속칭 '조 건만남' 사칭 사기 등으로 입금받은 16억8000만원을 찾아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본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져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설정 IP주소 등을 알아내도 해외에 있는 범인 검거에는 외교부·법무부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서는 인출액 등 '꼬리만 잡는 게 고작이다. 이 때문에 진화하는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적 공조 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檢, KT 압수수색

### 이석재 회장 배임 고발 수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재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폰을 몰래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여명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 노인도 청년도 "내 일자리 어디?"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비람 일자리 만들기-2013 광주 일자리 박람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구인란에 적힌 취업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휴무 때 아내 편의점 '행패男'에 수감채운 경찰... 적절? 과잉?

현직 경찰관이 휴무일(비번)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취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에 인계했다면 적절할 일일까, 아니면 과잉 대응일까.

손님 서모(52)씨는 지난 19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 인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 이모(48)씨를 폭행했다. 당시 비번으로 편의점에 있던 광주 서부경찰 모 지주대 소속 S경위는 서씨에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 금남지주대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문제는 서씨가 S경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현재 경찰

은 서씨의 주장을 토대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형소법심 경찰관이 비번일 때에도 현행범인 경우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인 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주장대로 S경위가 처음부터 폭행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서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 난감하다"라며 "(폭행사건과는 별도로) 적절한 대응이었던지 여부는 양측 조사를 모두 끝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책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책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대안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80013호-승-26호

## 무시험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 교육생 모집

국비 지원 교육생 모집 | 실업자·재직자 계좌제 훈련(주·야간반)

100만원 (일 반) → 30만원 (계좌제)

(계좌제 관련 석찬순 40명 / 상담을 통한 전액 국비 지원가능)  
※ 교육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0월 31일(목) 개강 주·야간 수시 모집중!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 ☎ 062.223.7844 H. 010.9300.8245  
광주시 북구 중흥동 683-14 (광주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길 500m 좌측)